

고 응답했다. 업체의 크기와 업종에 관계없이 인지된 가장 큰 변화는 고용관계, 재해율, 보험료였다. 가장 포괄적인 위험 감소 전략을 찾는 업체는 그들의 의학적 감시프로그램의 이익에 기인한 것 같다. 2단계 응답자에 의해 인지된 의학적 감시의 이익은

비용절약, 의학적 문제의 조기발진, 생산성 증가, 상해와 질병발생률 감소로 나타났다.

많은 회사가 그들의 의학적 감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 또는 절차를 갖고 있지 않았다. ★

단 신

퇴직근로자의 직업적 위험요인과 육체적 무능력

김 규 상

노인연령층의 육체적 무능력은 오늘날의 주요보건문제의 하나이다. 이는 기관 또는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전의 다른 요인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육체적 무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커지며 여성에서 더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종, 수입, 교육, 주거상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더구나 흡연, 음주, 운동부족시 이러한 무능력은 더 연관성이 크다. 그러나 각각의 효과는 복잡적이다. 그리고 현재 직업적 위험요인이 육체적 무능력에 어떠한 장기적 효과를 갖는지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의 Bernard Cassou 등은 파리의 연구공단지로부터 무작위 추출한 60세 이상 993명(484명의 남자와 509명의 여자)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및 작업환경과 관련한 위험요인과 육체적 무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직업, 직업적 위험요인, 주택상태, 이전의 건강상태, 면접시 질병유무, 증상 및 징후, 기본활동장애 등에 관한 직업적 폭로와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질문서를 통하여 수

집되었으며, 직업력은 8종류의 위험환경요인(소음, 고열, 굵은 날씨, 분진, 유해독성물질, 중량물 취급, 불편한 자세, 진동)에의 노출정도를 적어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직종의 분류는 사무직종(관리자 및 기술직), 사무원 및 판매직, 생산직 근로자(현장주임, 숙련공 및 미숙련공, 서비스업 근로자),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고, 육체적 무능력에 대해서는 7개의 기본활동(옷입기, 화장실가기, 먹기, 계단오르내리기, 편평한 잔디걸기, 수영각기, 발톱손질)을 평가하였다. 기본활동 정도는 3범주(기본활동에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하나 이상 기본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움은 불필요, 하나 이상의 기본활동에 도움이 필요)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건강상태는 5유형의 장애(근골격계, 심호흡기계, 시청각계, 소화기, 정신장애)를 조사하였다. 기타 요인으로 연령, 단독주거, 화장실의 위치 등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가정방문을 통하여 307명의 남자와 320명의 여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되었

다. 평균연령은 69세이었다. 단일변량 분석결과 작업중(은퇴전)의 소음, 고열, 분진,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 등의 직업적 위험요인과 은퇴후의 육체적 무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군에서 직업적 위험요인에의 폭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직업적폭로의 평균 위험요인수와 무능력의 범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육체적 무능력의 범주별 각 유형의 건강장애 빈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은 연령과 단독주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일상활동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건강장애를 나타냈다. 근골격계 및 심호흡기계 건강장애 유무와 각각의 직업적 폭로 위험요인간에 있어서는 근골격계장애는 중량물 취급과 불편한 자세, 심호흡기계장애는 고열 및 굵은 날씨를 제외한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설명변수로서 동종의 세 하부집단(사회인구학적 변수, 건강장애 변수, 직업적 위험요인 변수)으

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성(여성), 직업상태(생산직), 거주공간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근골격계, 심호흡기계 및 시청각계 등의 건강장애 변수, 중량물 취급의 직업위험요인 변수가 육체적 무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각각의 세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를 일반회귀모형에서의 다변량분석 결과 직업상태와 세 건강장애가 상관이 있었으며, 다공선성을 고려하여 직업상태 변수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세 건강장애변수와 성 및 중량물 취급이 육체적 무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직업적 위험요인이 은퇴 후의 이와같은 육체적 무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직업력과 건강상태는 육체적 무능력과 각각 관련이 있으며 위험요인으로서 직업적 폭로는 육체적 무능력으로 이끄는 건강장애를 야기시킨다고 볼수 있다. 아울러 직업적 위험요인이 은퇴 이후의 노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회보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로서 지면을 통해 그 말은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회원을 비롯 산업보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본회보에 많은 투고와 성원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내용

- 산업보건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언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논문 및 조사연구보고
- 현장사례
- 산업보건관련 자료
- 시, 수필, 폰트 등

보낼곳

우편번호 137-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번지
대한산업보건협회 편집실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려를 지급합니다.

원고게재 여부는 본지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